

## “통합·지선 이후 경기 회복…좋은 지도자 뽑아야”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기대 속 민생회복 주문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부분 체감 못하는 상황  
지방선거 후보 쏠림 우려…리더십 기준도 제시

이번 설에 만난 지역민들은 경기 하강 국면 속에 민생의 어려움이 감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코앞에 닥친 광주와 전남의 광역행정통합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감과 지지도가 높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설 마바자에 페이스북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 지역구 민심을 전하면서 대부분 “이번 명절은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았지만 지역민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번 설은 과거에 비해 다소 차분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였다. 음·

면 소재지마다 삼막함은 평일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한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 특히 코스피 등 경제지표 호조와 강력한 부동산 정책추진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과 우려,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무산 이후 선거연대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번 설 연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가장 큰 목소리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였다”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은 민심을 만들어 올 한 해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전반적인 내수 침체 우려 속에서도 골목 상권의 체감 온도는 지난해 보다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여수시을)은 “(이순신 대교에서 보니) 광양항 컨테이너 선박이 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여수 전통시장 인사를 갔더니 손님들이 평소의 절반도 안돼 썰렁하게 느껴졌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 정부 정책으로 조만간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느껴졌다.

정진우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설 명절에 만난 30대 조카가 “지금은 이전과 달리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전에는 말해도 안 변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되면서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신기하다. 그래서 희망이 생겼다. 뭔가 해보고 싶어졌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고향의 情 가슴에 담고 설연휴 마지막날인 18일 광주 송정역에서 고향의 냐넉한 정(情)을 가슴에 담은 귀경객들이 용산행 KTX 열차를 타고 있다. ▶ 관련기사 9면

최기남 기자 bluesky@

###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가시권

#### 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넘겨

#### 이달 국회 통과시 6월 통합특별시장 선출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달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가결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됐고, 조항은 413조 이상이다. 당초 안은 38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발의 이후 413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4조항 이상이 늘었다.

이 법안은 지역에서 요구한 조선산업 종합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등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특별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국회의 특별법 통과 후에 행정안전부

행정 체계 개편 지원단에서 준비하는 매뉴얼에 따라 행정통합 실무 작업이 진행된다. 실무 부서에서는 광주시·전남도의 조례와 예산·조직 등을 합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7월, 은 시도민의 죽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 여수 경도, 호남 첫 5성급 호텔 들어온다

#### ‘JW메리어트’ 객실 300여개 규모…2029년말 완공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선다.

18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래에셋이 투자한 관광단지 조성 시행사 YK디벨롭먼트는 지난해 말 글로벌 호텔기업인 메리어트와 호텔 경영 계약을 체결했다.

사측은 29층, 객실 300여개 규모 건축물을 설계하고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랜드마크급 디자인이 반영된 5성급 JW메리어트 호텔이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망했다.

YK디벨롭먼트는 건축 허가가 취소된 레지던스를 대체할 시설 구상에도 착수했다. 사측은 2022년 6월 여수시 경호동 대경동에 27층, 12동, 1121실



JW메리어트 호텔 조감도

규모 레지던스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취소를 요청했다. 연말까지 대체 시설 사업성 분석 용역을 거쳐 후속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이 주도하는 YK디벨롭먼트는 경도 2.15㎢(65만평)에 1조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구종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은 “5성급 호텔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렬·광양·김귀진 기자 holbul@

### 밀라노 동계올림픽 ‘금’ 최가온 금의환향

▶ 관련기사 15면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치면 특별해집니다

내일 빛나는 광주 + OK! 지름드  
기회도시 광주 + 전남시대

지역은 더 부강하게  
복지는 더 따뜻하게  
교통은 더 빠르게  
생활은 더 즐겁게  
일상은 더 안전하게

복지  
교통  
생활  
일상

경쟁 불필요  
특별한 보상  
일자리 증가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  
생애전주기 돌봄 강화  
60분 생활권 완성  
교통 할인 혜택 통합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  
축제·행사 공동개최  
광역 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공동활용  
시도민 소통 플랫폼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QR Code